



할말 웃음



[염라다바라의 선풍기]

무려 50여 차례 강도, 절도를 저지르는 등 악행을 일삼 던 사람이 마침내 죽어 지옥 문으로 들어가 염라대왕 앞 으로 끌려갔다. 그런데 때마침 염라대왕은 낮잠을 자고 있던 터라 염라대왕이 잠에서 깰 때가지 염라대왕의 시 종이 그를 데리고 지옥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기로 했다.

한참을 지옥 구경을 하던 지옥 신입은 지옥 여기저기 시계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궁금해 염라대왕 시종에게 물었다.

"저기……, 여기에 왜 시계들이 이렇게 많지요?"

시종이 대답했다. "시계는 여기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개씩 주어집니다.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시계가 빨리 돌아가도록 설정돼 있지요. 그걸로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지요."

다시 신입이 물었다. "그런데····· 저는 아직 시계를 받지 못했는데 제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?"

시종이 대답했다.

"아······, 그대의 시계는 지금 앞 유리판을 잠시 제거하고 염라대왕께서 선풍기로 사용하고 계시오."

[실수

사원:지금 막 봉급을 확인해보니 5만 원이 부족합니다. 경리: 알고 있어요. 지난달에는 5만 원이 더 갔습니다. 그런데 그때엔 아무 소리도 없었잖아요?

사원: 어쩌다가 한 번쯤 실수하는 거야 봐 넘길 수도 있지만 두 번이나 연거푸 그런 일이 있다면 그대로 봐 넘길 수 없죠!

[화실한 병명]

한 여성이 의사를 찾았다.

"선생님! 온몸이 다 아픈데 너무 심각해요! 제발 좀 원 인을 알려주세요."

그러면서 손으로 팔을 누르고 나서 "아~!" 하고 비명을 질렀다. 또 다리를 만지며 "아~!" 소리를 지르고, 코를 만지면서도 "아~!" 하고 비명을 질렀다.

여자는 심각하게 인상을 쓰며 말했다. "보세요! 얼마나 심각한지 보셨죠?"

그러자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다.

"걱정 마세요~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네요. 당신 집게 손가락이 부러졌어요!"

[부부를 위한 거짓말]

- 아내 기 살려주는 남편의 거짓말 "예쁘고 날씬하기만 하네." "내가 다 할게, 당신은 쉬고 있어." "엄마가 얼마나 예뻤었는데."
- 남편 기분 좋게 하는 아내의 거짓말 "모델이 따로 없네." "나 화 안 났어."

"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?"

[번번한 이웃]

이웃에 사는 남자가 거의 매일 찾아와 무엇인가를 빌려가곤 했다. 어느 날 약이 오른 남편이 아내에게 다짐했다. "이번에는 아무것도 빌려가지 못할 거야!"

드디어 이웃집 남자가 찾아왔다.

"혹시 아침에 전기톱을 쓰실 일이 있나요?"

"어휴, 미안합니다. 오늘 종일 제가 써야 할 것 같은 데요." 그러자 이웃집 남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. "그럼 골프채는 안 쓰시겠군요. 좀 빌려도 될까요?"

[공중전화로 전쟁하는 남자]

급하게 집에 연락할 일이 생긴 삼순이.

하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 공중전화를 찾았다. 우 여곡절 찾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한 남자가 통화를 하 고 있었다. 10분이 지나도 남자가 전화를 끊을 기미가 없 자 삼순이는 부스 안을 들여다 보았다. 깔끔하게 차려 입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귀에 대고 만 있었다.

화가 난 삼순이가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. "여보세요, 상대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뒤에 기다 리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?"

남자가 삼순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정중하게 대답했다. "죄송하지만 지금 통화 중입니다."

"통화중이라뇨? 쭈욱 지켜봤는데, 계속 수화기만 들고 계시던데!"

남자가 삼순이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. "지금 마누라와 냉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!"

[선배 구하기]

어느 허름한 집의 주인이 방 하나를 세 주기 위해 문에 '방 있음. 어린이 없는 분' 이라고 써 붙였다.

그런 후얼마 있다가 노크 소리가 나더니 8살가량된 사내아이가 들어와 물었다. "아주머님, 창문에 써 붙인 걸봤는데요, 아직 나가지 않았나 해서요."

이 아이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을 이어 갔다.

"어린아이는 없습니다. 나하고 늙은 부모님뿐입니다." 밖에는 젊은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. 셋 방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.

라인댄스 초,중급 반



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! 배우기 쉽고,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

장소

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. Garden Grove,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

시간 매주 수-목-금요일 오전10시30분

☎ 문의전화 (562)760-3406 에스터 장



Candice K. Kim(김경아) 714-373-6883 764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

CA Insurance Agent #: 0B30329

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



© 2019 Allstate Insurance Co.